

# ‘리얼리티 쇼’ 아닌 현실로... 160년 전통 美 공화당의 모험

트럼프, 대선후보 공식 지명  
대의원인 장남이 선출 발표  
러닝메이트 펜스와 전대 등장

역만장자 부동산 재벌이자 ‘아웃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가 19일(현지시간) 마침내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보수층과 자유 무역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백인 노동자층의 분노를 바탕으로 경선 레이스에서 16명의 라이벌을 차례로 꺾은 돌풍을 일으킨 데 이어 160년 전통의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농구경기장인 ‘퀴클론스 아레나’에서 열린 전당대회 이틀째 행사에서 진행된 공개 투표 ‘롤 콜’(Roll Call)을 통해 대의원 과반인 1237명을 무난히 확보하고 당 대선후보로 등극했다.

트럼프는 각 주 대의원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롤 콜’이 시작되자 1시간 만에 승리를 확정지었다. 트럼프는 승리가 확정된 뒤 대회장에 방영된 영상 발언을 통해 “이는 하나의 진전”이라며 “은 힘을 합쳐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가 러닝메이트로 낙점한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도 공식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 트럼프와 펜스 주지사는 21, 22일 전대에 함께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전대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수락연설을 통해 8년간 민주당에 빼앗겼던 정권 탈환계획을 밝힌 뒤, 민주당의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아웃사이더 vs 여성’이라는 ‘세기의 본선 대결’을 본격화한다.

이날 트럼프를 대선후보로 선출한 ‘롤 콜’은 전당대회를 주관하는 전국위 의장이 엘라베마 주를 시작으로 총 56개 지역을 일파파 순서로 호명하고 그 지역의 대의원 대표가 기립해 해당 주의 후보별 대의원 확보 표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



트럼프 “또 하나의 진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이틀째 열린 19일 오후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퀴클론스 아레나’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트럼프는 대의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 직후 대형 스크린에 생중계된 발언을 통해 대의원에 “이는 하나의 진전이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다. 특히 트럼프는 고향인 뉴욕 주 ‘롤 콜’에서 89명의 대의원을 확보하면서 이벤트가 시작된 지 1시간여 만에 과반을 차지하고 승리를 확정했다.

트럼프의 장남이자 뉴욕 주 대의원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부친의 대선후보 공식 선출을 발표하면서 “뉴욕 주에서 89명의 대의원과 함께 트럼프를 1등으로 만들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장녀 이반카와 차남 에릭, 차녀 티파니도 트럼프 주니어 옆에서 승리 선언을 지켜보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롤 콜’ 과정에서 일부 반대파의 야유가 나오기도 했지만 트럼프의 승리는 압도적이었다. 승리가 확정되자 청중들은 “트럼프”를 연호하며 환호했다. 이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3인방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티파니 등 트럼프의 자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와 벤 카슨 등

경선 라이벌 등이 연단에 올라 트럼프 지지를 호소했다.

트럼프는 어릴 적 ‘문제아’에서 성공한 사업가, 리얼리티 TV쇼 진행자를 거쳐 대선후보에 이른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아이비리그에 속한 명문대학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로 편입해 경제학을 전공한 데 이어 대학 졸업 후 아버지와 함께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1971년 아버지로부터 ‘엘리자베스 트럼프 & 선’의 경영권을 승계한 뒤 ‘트럼프 그룹’을 일궜다. 2004년부터 NBC 방송의 서바이벌 리얼리티 TV쇼 ‘어프런티스’(견습생)를 진행하면서 더욱 유명해졌고 정치인으로서의 변신할 기반을 마련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 멕시코 이민자 차단을 위한 장벽 건설, 모든 무슬림 입국금지, 보호무역, 동맹과의 방위비 재협상 등을



전당대회장에서 트럼프의 인종차별을 비난하는 시위자들이 제지를 받고 있다.

주장하며 논란에 휘말렸다. 하지만, 백인 노동자와 보수적 중산층 등은 그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트럼프는 수락연설에서 자신의 대선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내걸고 미국의 재건과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노선을 표방하고 정권 탈환 구상을 밝힌다. /연합뉴스

## 트럼프 부인 연설, 8년 전 미셸과 비슷 “연설문 내가 썼다” 주장...책임자 조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하기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주인공은 단연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사진)였다. 그러나 멜라니아에게 쏟아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연설 직후 제기된 ‘표절 논란’으로 상당 부분 빛을 잃었다.

다. ‘삶에서 원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내 말이 곧 네 굴레’나 ‘말한 대로 하라’ ‘위업과 존경심을 갖고 사람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대회 첫날인 전날 멜라니아의 한 찬조연설이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가 한 연설과 두 단락 이상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을 대하라’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연설하기 전 멜라니아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최대한 다른 이의 도움을 덜 받으면서 내가 연설문을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 언론들은 “머리통들이 굴러 다닐 것”이라고 전해 경유에 따라서는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표절로 의심받는 부분은 10분가량의 연설 중 초반부에 어린 시절 교훈을 언급한 부분이었다. 멜라니아는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삶에서 원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내 말이 곧 네 굴레’니 말한 대로 하고 약속을 지켜라’ ‘존경심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라’라는 가치들을 강조해 깊은 인상을 주셨다”고 말했다.

올해 46세인 멜라니아는 슬로베니아 태생 전직 모델로 2005년 트럼프와 결혼해 트럼프의 세 번째 아내가 됐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20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태생 퍼스트레이디가 탄생하며, 대통령의 세 번째 부인이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첫 사례도 된다. /연합뉴스

8년 전 8월 25일 미셸 여사가 “바라과 나는 많은 가치를 공유하며 지냈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자녀인 트럼프 주니어(왼쪽부터), 이반카, 에릭 및 티파니가 박수치는 모습. /연합뉴스

## 선거 압승 아베에 ‘개헌 토대’ 닦아 주겠다는 日 자민당

9년 집권 당칙 개정론 부상

참의원 선거 대응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 공고해진 가운데 그가 최대 9년간 집권할 길을 열어주자는 의견이 집권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자민당은 총재를 연속해 세 번 맡을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을 손질해 아베 총리가 더 오래 집권할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다.

NHK에 따르면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총무회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

9월까지인 아베 총리의 당 총재 임기에 대해 “아베 총재의 내외에서의 활약에 지금 당내에서 이론을 내는 사람은 없다”며 “상황이 이런 때는 총재의 임기에 대해 당내의 적당한 기관에서 검토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여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집권 자민당의 당칙을 보면 3년 임기인 총재는 한 사람이 2기에 걸쳐 연달아 6년간 할 수 있다. 현재의 자민당 당칙대로라면 2012년 9월 당 총재로

당선된 아베는 작년 9월 재선에 성공한 만큼 2018년 9월 총재 임기 종료와 함께 총리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당칙을 개정해 아베가 총재 3선을 한다던 그 중간에 정권 교체 등 변수가 없는 한 2021년 9월까지 총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가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진두지휘할 뿐만 아니라 숙원인 개헌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나하시 아스후미 자민당 간사장 대리도 이날 “장기 정권이 경제의 안정, 국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플러스가 된다”며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에 찬성한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자민당 내에서 임기 연장론이 공공연히 나오는 것은 아베 총리가 당을 이끌면서 자민당이 선거에서 반복해 승리했고 이에 따라 그의 지배력이 공고해졌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2012년 9월 당 총재가 된 뒤 그해 12월 2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해 그로부터 현재까지 3년 7개월 동안 권좌를 지키고 있다. 당 총재로 재임하는 동안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를 포함해 4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중의원 2회·참의원 2회)에서 연속으로 대승했다. /연합뉴스

## IS, 독일 도끼 테러 범인 영상 공개

‘이슬람국가’(IS)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톨신은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에서 18일 밤(현지시간) 열차 도끼 만행을 저지른 범인은 IS 요원으로서 그가 이 행위를 사전에 다짐하는 것을 촬영한 것이라며 해당 동영상은 19일 공개했다.

소개된 이는 “나는 IS의 군인으로서 독일에서 성스러운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당국은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 범인이 맞다고 밝혀 독일에서도 IS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테러가 발생했다는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 관할 바이에른주정부 요아힘 헤르만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범인이 스스로 이슬람 극단화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면서 IS와 연계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 영상을 보도한 슈피겔온라인에 따르면 도끼 난동의 범인으로 영상에서

독일 사회에는 아프간 난민 출신 청소년이 저지른 이번 테러로 긴장감이 높아졌다. 특히 독일 난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 고조가 예고됐다. /연합뉴스

### 호텔 급,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7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10억 (일시불 조정가)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이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토지, 6000평

### 투자 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의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33억 / 매매 - 27억(일시불 조정가)
- 계획관리지역 / 개발호재 많음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소유지 H. 010-3627-8282

### 대단위 APT 밀집지역

###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6억 2천만원
- 용자 - 5억 정도 가능
- 임대 - 보5천만에 월250만 보장
- 주인직매 H. 010-3605-5000